

# Pamiry

*falling in fall*

Pacom Family  
Pamiry

팩컴 POD팀을 소개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추억 만들기

안전제일 팩컴 소방훈련의 날

천년의 고도, 경주 여행

# 고객의 꿈을 만들면 우승품이다

All About Printing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ONE STOP TOTAL PRINTING SERVICE **FOR THE BEST, BY THE BEST!**

팩컴은 One-stop Printing Solution을 제공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전통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인쇄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Total Graphic Solution Provider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과 창조적 가치를 추구하여, 지속적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젊은 기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2 8층 (정자동 젤존타워2) | TEL : 031-718-3666 | FAX:031-718-5857

**Pacom**

**Pacom A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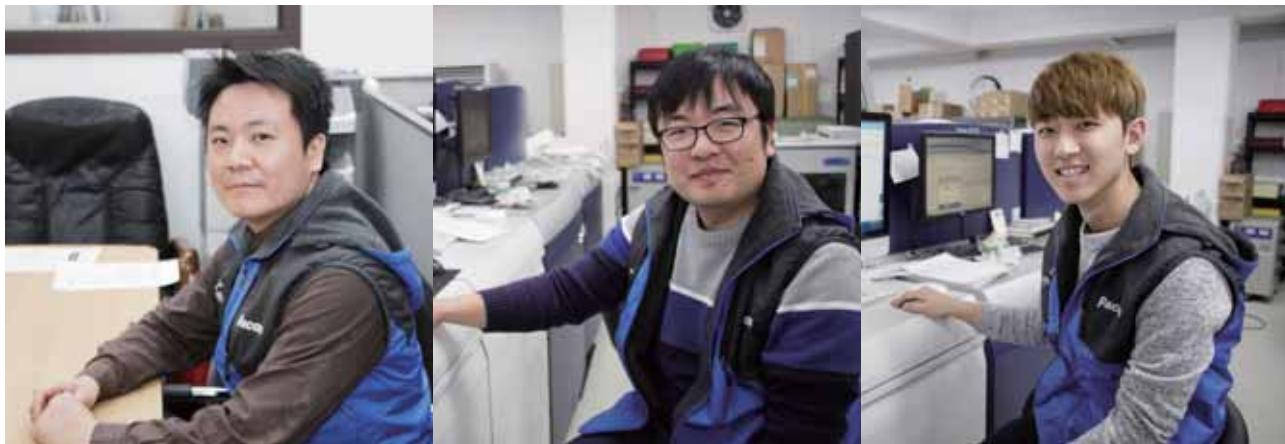
**Book m'ake**

## CONTENTS



- |    |       |                          |
|----|-------|--------------------------|
| 02 | 부서소개  | 우리 팩컴의 자랑 POD팀을 소개합니다    |
| 03 | 피플    | Prepress 사업부 CTP실 박덕재 사원 |
| 04 | 수암소식  | 싱가포르에서 추억 만들기            |
| 08 | 인터뷰   | 안녕하세요 봉원미입니다             |
| 10 | 칭찬합니다 |                          |
| 11 | 이모저모  | 막 찍어도 인생샷! 가을 명소         |
| 14 | 소방훈련  | 안전 제일! 팩컴 소방훈련의 날        |
| 16 | 힐링로드  | 천 년의 고도, 경주 여행           |
| 18 | 라이프   | 별다방 말고, 별마당              |
| 20 | 북리뷰   | me before you            |
| 21 | 정보쏙쏙  | 2017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제도들     |
| 22 | 칠각소리  |                          |
| 24 | 팩컴뉴스  |                          |
| 25 | 공감    | 내려놓고 가기                  |

# “우리 PACOM의 자랑 POD팀을 소개합니다!”



▲ 좌측부터 김익성 과장, 김종찬 대리, 전인범 사원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POD팀! 같이 소통하며 일을 하다 보면 의외로(?) 찾아볼 수 있는 세심한 부분들에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이런 POD 팀의 매력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팀 내에서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전인범 사원과 간략하게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 Q1. POD팀과 부서원들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POD 팀에서 목하 열심히 근무 중인 전인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김익성장님을 필두로, 김종찬 대리님과 저 이렇게 3인 소수정예 팀으로써 늘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 중이랍니다!

## Q2. POD 업무를 하면서, 가장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김익성 과장님 : 구슬땀을 흘려 가며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늘 실시간으로 자극 받고 있습니다. 팀원들에게 뒤쳐지지 않게끔 열심히 일해야지! 하며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팀원들의 뒷모습을 가끔씩 훔쳐 보며 저도 함께 보람을 느낍니다.

김종찬 대리님 : 인쇄와 제본, 제책까지 완성되어 출고만을 양전히 기다리고 있는 흰 새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되짚어보며 간혹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인범 사원 : 고객님들께서 종종 리뷰게시판에 책 잘 받아 보았다는,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책에 대한 폭풍 칭찬 후기들을 올려 주신 것을 보았을 때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 Q3.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일을 시작할 때와 마무리할 때에 가장 신경을 쓰고 꼼꼼히 체크하려 노력합니다.

일단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기계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기계의 컨디션은 그만큼 그 날 인쇄되는 책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완성된 책들을 확인하면서 출고 전에 다시 한 번 책의 품질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 Q4. 그 동안 작업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한 권이 있다면 어떤 책인가요?

기억에 남는 책이라고 하면 사실 참 많은데요. 개인적으로 굳이 딱 한 권만 꼽아 보자면 조아람 고객의 팬 메시지 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팬들의 메시지를 한데 모아 엮어 낸 책이었는데요, 제작을 하면서도 그 팬 분들의 정성과 연예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제게도 고스란히 느껴져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Q5.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 드립니다.

늘 그래 왔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성과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중인 POD 팀!  
패밀리가 응원합니다! 박다솜

**터프한 부산 사나이인 박덕재 사원**은 2010년에 팩컴에 입사하였으며, PREPRESS 사업부 CTP실에서 CTP 판을 출력하고, 정리한 후 인쇄팀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여의 시간 동안 근무하며 작업한 업무들은 전부 인상적이고, 그런 보람찬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루하루에 감사하다는 소박한 감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그는 함께 일하는 팀원들에게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전부 소탈하고 인간적인 면을 지닌 좋은 사람들이고 또 적은 인원이기에 더욱 서로 챙겨주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별 것 아닌 사소한 트러블로 괜히 서로 마음 상하고, 불편해질 바에는 작은 문제쯤이야 한바탕 웃으면서 훌훌 털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호기로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덧붙여, 최근 회사에서 저녁과 야식을 드시지 않는다고 들어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2주마다 돌아가며 주, 야간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야근 때 야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 식사를 하지 않기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끼니를 거르며 일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그게 오히려 몸에 잘 맞아서 속도 편안해지고, 몸무게도 7kg나 빠졌다고 자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반전. 사실 그는 어린이 입맛의 소유자라서 점심 때 햄이나 돈까스 등의 반찬이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폭식하게 된다며, 특별하게 따로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미모의 아내 분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 분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TV로 야구 경기를 보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는 박덕재 사원. 野生野死! 그야말로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부산 갈매기인 만큼 롯데 자이언츠가 7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돼서 굉장히 기대 중이라며, 신나게 야구 이야기를 늘어 놓으셨습니다.

야구도 물론 좋아하지만, 축구를 하는 것도 즐기셔서 일요일에는 동네 조기축구 회원들과 축구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신다고요.

또 주말에는 마음이 아픈 둘째 아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 가족들이 모두 함께 야외로 나가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려 노력한다고 하셨습니다. 터프하고 호탕한, 남자다운 웃음 뒤로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기에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힘든 야간 업무 후에도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인터뷰에 응해 주신, 박덕재 사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미선



## PACOM PEOPLE

# 터프하지만 마음 따뜻한, 반전 매력의 부산 싸나이!

PREPRESS 사업부 CTP실 박덕재

Hello Singapore !

# 싱가포르에서 추억 만들기



YOLO라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고 하더라. 그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팍팍한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바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여행을 통한 힐링과 새로운 경험이 아닐까? 해서 우리 12명은 한 마음 한 뜻으로 1년 전 겨울에 미리 예약까지 착착 완료해 놓고, 오직 이번 여름 휴가 하나만을 학수고대하며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갔다.

사실 사람 마음이란 변하기도 쉬운 것인데, 여행 당일까지 한 명의 중도 하차자도 없었던 우리 12명 멤버의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와 열의는 그만큼 대단했던 것이리라.

3박 5일.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다고 볼 수 있을 이번 여행 기간 동안 우리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왔다.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의 고도 발전, 세련된 시가지의 모습과 우리나라의 7~80년대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듯한 인도네시아의 모습. 배로 고작 40분 거리, 가깝게 붙어 있는 두 나라의 차이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였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는 57층 높이의 까마득한 건물로써, 도시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이 멋진 건물을 다름아닌 우리 나라 쌍용건설에서 건설했다는 것에 자부심과 애국심을 느꼈다. 전 세계의 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관을 이루는 주롱 새 공원과, 기둥 하나 없는 7층짜리 실내 정원과 해안가 정원들이 모여 있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환상적인 정경. 작별하는 열대의 태양 아래 시원하게 타고 내려오는 폭포수 물줄기에 다시 한번 감탄, 또 감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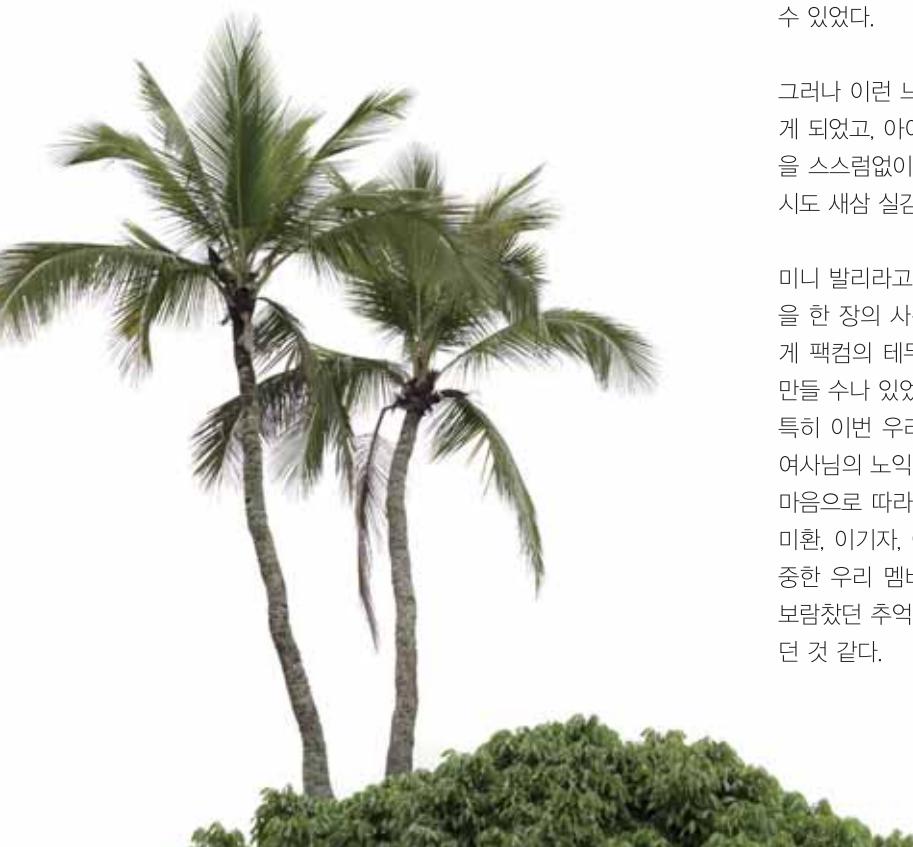
싱가포르의 상징인 머라이언 공원의 탁 트인 시원한 풍경과 센토사섬의 케이블카, 머라이언 타워. 1년 365일 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비춰주는 리버 보트의 아름다운 야경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여행이었다!

이후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또 다른 여행지인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넘어가기 위해 약 40분 간 배로 이동했다. 이동하면서 슬쩍 엿본 바탐은 전반적으로 아직 개발이 채 되지 못 한 과거 우리나라 70년대, 이를테면 마치 우리네 어릴 적 풍경으로 돌아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었다. (어쩌면 바탐에게는 약간 미안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주변 환경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 좋은 환경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느낌도 잠시, 바탐 원주민들의 순수함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국말을 스스럼없이 할 줄 아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 역시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미니 발리라고도 불리는 바탐 투리비치에서의 아름다운 추억 한 장면을 한 장의 사진 속에 담았다. 사진을 보다가 문득,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팩컴의 테두리 안에 함께 있지 못 했다면 과연 이런 멋진 추억을 만들 수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이번 우리의 팩컴 추억 만들기 여행에서 가장 연장자인 문순희 여사님의 노익장 과시에 우리 식구들은 모두 감탄하였으며, 아울러 한 마음으로 따라 준 정순녀, 박수엽, 구기순, 이승희, 서선희, 성점순, 조미환, 이기자, 이영숙, 안기자 그리고 구유순 이렇게 총 열 두 명의 소중한 우리 멤버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였기에 정말 재미있었고 보람찼던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알찬 힐링 캠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구유순

남는 건 사진뿐! 자그마치 3천 장의 사진을 간직하며, 설령 팩컴을 떠나더라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능력에 인간미까지 갖춘 그런 "여왕벌"이랍니다.

구기순

6시간의 긴 비행길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금세 창이공항에 도착했어요. 3박 5일이 하루처럼 신비롭고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여운 가득한, 고이고이 간직하고픈 팩컴에서의 추억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갑니다.

문순희

떠나기 전 많이도 망설였지만, 수암 식구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긴 여행을 무탈히 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만은 아팔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눈물)

이승희

팩컴 썬 언니들, 싱가포르 완전 정복! 환상적인 야경에 레이저 쇼, 공원의 무지개까지… 이런 멋진 추억을 공유하다니, 아마 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과장님, 12명 인솔에 사진까지 찍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호랑이 크림 하나 자진납세 할게요!

서선희

여행하다 보면 아래저래 불편해서 소위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이번 여행은 모두가 만족스러웠습니다. 12명의 환상적 팀워크 덕분이라 생각하며 올 여름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 이영숙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다! 다리도 짧고 돈도 없어 서럽지만 팩컴서 벌어 멋지게 떠나봅니다. 싱가포르도 수암에서 접수하고 왔습니다.

## 정순녀

팩컴에 다닌 지도 벌써 10년. 이번 싱가포르 여행은 그간의 많은 추억 중에서도 조금은 특별하게. 먼 훗날 삶이 조금 지겨워질 때에도 한 병의 박카스 같은 존재로 가슴 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과장님~ 모두모두 사랑해요.

## 박수엽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아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그냥 딸이 챙겨준 대로 출발했습니다. 첫 해외여행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어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 이기자

첫 해외여행이라니 꿈인지 생시인지, 어설플고 낯설어도 사람 사는 곳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지만 방심은 금물! 창이공항에서 그만 동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끔찍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 역시 기억에 남을 추억이네요. 고마워요 언니 동생들…

## 성점순

바탐에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큰 파도와 함께 배가 멈추고 뱃머리에 기관총을 단 해상 폴리스가 떴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배 수색에 나섰는데 무서웠어요… 놀랐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 조미환

일정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바탐! 투리비치 일명 미니 발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우리 12명의 여왕벌들, 또 영원히 잊지 못 할 싱가포르와 바탐!

# 봉원미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을 앞두었던 어느 추운 겨울 날. 젊음 하나로 그저 배짱만 두둑했던 그 때에 저는 처음 사회에 나와 팩컴을 만났습니다. 모든 게 즐겁고 신기하기만 하던 그 시절. 작은 일에도 감정의 기복이 하늘과 땅을 오가던, 피 끓는 그 시절. 기쁜 일도, 또 화가 나는 일도 솔직하게 표현하기에 거침 없던 그 시절… 그 때 저는 그렇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20대의 모습으로 이곳 팩컴에서 젊은 시절의 새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인 팩컴을 다니며 비단 일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배우고, 술도 배우고, 싸우는 방법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흥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돌이켜 보면 이것저것 참 많이도 배웠습니다. 하나씩 누가 가르쳐 줬는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걸 보면 팩컴에서 배운 거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게 제게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 준 소중한 팩컴을 뒤로 하고, 아쉬운 마음 한 가득 안은 채 떠나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팩컴을 떠나 있던 긴 시간 동안에,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어쩐지 문득 이곳 당정동이 생각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흔한 커피숍 하나 없던 삭막한 회색의 이 동네도, 허름한 "덕성관"도, 시끄러운 기계 소리들조차 그립던 그런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커피숍은 없어도 커피 한 잔 들고서 옥상에 올라가 속상한 내 이야기도 자기 일처럼 들어 줄 동기가 있었고, 허름한 식당이라도 "오늘은 특별히 외식" 이라면서, 짜장면 한 그릇 사 주며 기운 북돋아 주는 든든한 선배가 있었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 속에서도 지지 않을 큰 소리로 "원미씨!" 하고 제 이름을 불러 주시던 친절한 현장 직원 분들이 있었던 이곳.

아. 그래서 전 그리도 팩컴이 그리웠나 봅니다. 추억이라는 것이 참. 어쩌면 그간의 나쁜 것들은 다 지워 버리고 좋았던 것들만 아름답게 각색해 저장해 둔 것 같기도 하죠. 아니, 실수로 잘못 만들어 저서, 저를 팔레트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게 했던 어떤 책들도 그렇거나 그리웠던 걸 보면은 어쩌면, 이건 병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팩컴에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하기까지 사실은 정말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걱정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제게 늘어난 건 끊임없는 망설임과 두려움밖에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죠. 거기에 철 없던 시절이 부끄러워서, 덤벙거리기만 하던 어린 시절이 창피해서, 아마 다시는 이곳에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 아직 어린 두 딸아이가 제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제대로 할 게 아니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남편의 으름장이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전 결국 이렇게 다시 팩컴에 돌아왔고, 다시 시작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뒤로 하고 다시 시작할 때에, 저는 속으로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마음에 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하자! 즐겁게 하자!"

9살짜리 큰 딸아이가 어제 저녁, 문득 제게 질문하더군요.

"엄마! 엄마는 얼마 내고 회사 다녀?"

조금 황당한 소리기에 선뜻 대답을 못 하고 멀뚱히 있는 제게 아이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엄마 좋아서 다니는 거니까 돈 내야 하지? 나도 피아노 학원에 돈 내잖아. 엄마는 얼마 내?"



## 엄마! 엄마는 얼마 내고 회사 다녀?

그 순수한 질문에 저도 웃고, 또 남편도 웃었지만, 왠지 마음 한 구석은 찡했습니다. 지난 두 어 달, 일하는 낯선 엄마 모습이 즐거워 보였나 싶어 조금은 다행스럽기도 했고, 한 편으로 아이들에게 소홀한 엄마가 원망스럽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이 들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9살 아이에게 5살 아이를 맡기고 다시 시작하는 큰 일인데, 새로운 일을 하는 엄마의 모습이 즐겁고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컷답니다.

20대 그 어린 시절처럼 패기 있지도, 용기 있지도, 힘이 넘치지도 않지만, 오로지 하나! 조금은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멀리 보고, 천천히 보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과 기억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직 철 덜 든 아줌마, 봉원미였습니다. 박미선



# 칭/찬/릴/레/이

지리한 여름이 가고 드디어, 가을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아아. 가을이 되면 웬지 외롭고 기분이 읊적해 져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슬픈 유행가 가사가 모두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감성 충만할 때일수록, 서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칭찬의 말 한 마

리를 주고 받는다면 기분이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번 칭찬 릴레이의 인터뷰어들은 자신이 칭찬받을 때보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에 훨씬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훈훈함을 목도한 순간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곤 했답니다.(웃음) 을 가을, 칭찬릴레이의 스타트를 끊어 주실 대망의 첫 주자는 생 산관리부의 주명희 과장님입니다! **P유공심**

## 생산관리부 주명희 과장 >>> 인쇄사업본부 10호기 유성현 부기장

언제 뵙더라도 늘 웃음 띤 얼굴로 대해주시고, 변함없는 친절한 태도에 따른 우울했던 기분도 잠시 잊게 될 정도랍니다. 그의 해피 바이러스가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었으면 합니다.



## 인쇄사업본부 10호기 유성현 부기장 >>> 인쇄사업본부 2호기 김경재 부기장

긍정왕! 성실왕! 이런 멋진 별명들이 참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각이나 결근하시는 모습을 한번도 보지 못 할 정도로 성실하신데다가,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변인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까지.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최고입니다!

## 인쇄사업본부 2호기 김경재 부기장 >>> 인쇄사업본부 최현준 사원

하루만 안 나오셔도 주변부터 바로 화 티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희 인쇄사업본부는 작업장 주변이 여러 가지 부품들과 화학재료, 용지들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최현준 사원님의 정리정돈 덕에 항상 청결과 정돈된 환경에서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바닥에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어느 새 오셔서 신속하게 치우시는 모습!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번거롭고 힘드실 텐데도 짜증 한 번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업무를 떠나 주변 인들을 아끼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 인쇄사업본부 최현준 사원 >>> 인쇄사업본부 이병길 이사님

엄지 척!!! 기장님들이 편하게 인쇄 품질에 더욱 신경 쓸 수 있게끔 모든 기계 점검은 기본으로 척척 해 내시고, 모든 직원들을 다정하고 또 꿈꼼히 챙겨 주신답니다. 이렇듯 매사에 열심이신 이사님을 보면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은 마음도 절로 든답니다. 정말 멋진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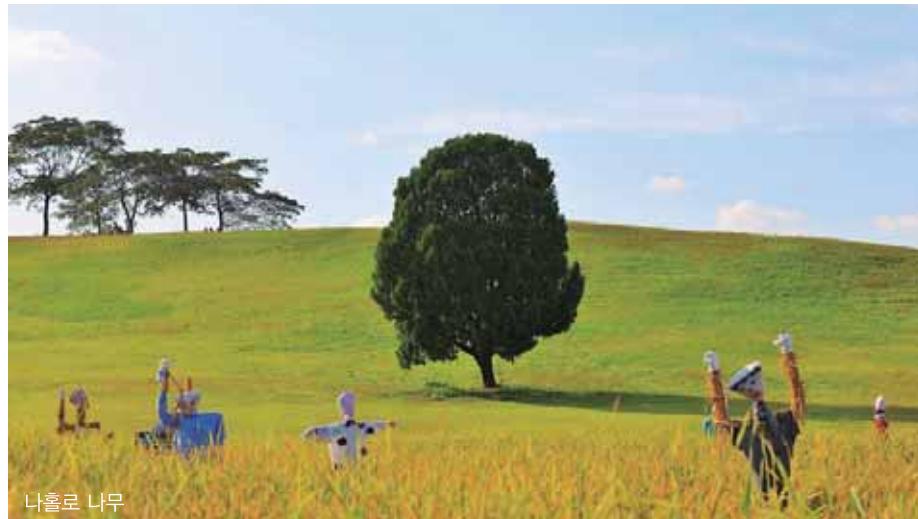


올 가을엔 꼭–남기자, 막 찍어도

## 인생 사진 나오는 가을 명소

하늘은 높고 바람이 선선한 가을은 그야말로 산책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팩캠 가족들의 성공적인 나들이를 위해서 서울 근교의 나들이 장소를 열심히 찾아 엄선해 보았다.

올 가을, 아쉽게 보내지 말고 "막 찍어도 인생 사진 나오는 명소"로 가을 나들이를 떠나 보자!



나흘로 나무



노란 코스모스



들꽃마루 풍접화

### 서울 올림픽공원 들꽃마루

서울 시민들이 강력히 추천하는 숨겨진 명소, 올림픽 공원. 이곳에서는 그야말로 가을의 시작부터 절정까지를 유감없이 만나볼 수 있다. 특히나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노란 코스모스와 분홍빛 풍접화가 굉장한 절경을 이룬다고. 들꽃마루에서 30분 정도 걷다 보면 올림픽 공원의 또 다른 명소인 '나흘로 나무'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한다.

**TIP** 9월부터 10월까지가 꽃이 가장 예쁘게 피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사람이 매우 몰려서 꽃 반, 사람 반이라고들 할 정도. 주말 방문 시, 오후보다는 그나마 사람이 덜 붐비는 오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

**자가용** : 남2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가장 가깝다. (주차요금 1시간 1,000원 15분 초과마다 500원씩 추가)

**대중교통** : 지하철 5호선 방이역 4번 출구로 나와 쪽 직진!



풍선을 판매하고 간단한 소품도 무료로 대여해 준다



스마일극장 페스티벌



시간도 함께 멈춘 듯 한 회전목마



기차도 멈춰 있다

## 망우동 용마랜드

용마랜드는 스타들의 뮤직비디오에 종종 출연하게 되면서, 뜰했던 관광객들의 발길이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 여행지이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한 느낌을 주는 이곳은 바로 오래 전 폐장한 놀이공원. 녹슬고 낡은 놀이기구들에서 느껴지는 쓸쓸함과 빈티지함이 가을 감성과 딱 들어 맞아.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네 유년기 한 견을 장식했었던 익숙한 놀이기구들이 이제는 어른이 된 방문객들에게 향수와 또 다른 설렘을 안겨 주고 있는 용마랜드. 2019년에는 캠핑장이 있는 테마 공원으로 새로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 그리운 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아련한 기억들을 추억으로 담아 보는 건 어떨까?

**TIP** 페 놀이공원이다 보니 즐길 거리가 사실 그리 많지는 않다. 나들이의 주 목적이 사진을 찍는 것이라면 강력 추천!

문이 닫혀 있어도, 입구에 붙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관리인이 나와서 입장을 시켜 준다.

입장료 : 5,000원 / 이용시간은 매일 09:00 – 20:00 이지만,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이용시간 외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 용인 호암미술관

호암 미술관은 에버랜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그렇지만 에버랜드의 왁자한 인파와는 차원이 다른, 한적함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치 숨겨진 비밀의 화원처럼, 이곳에는 가을에 찾아 가면 더욱 예쁜 전통 정원 "희원"이 숨어 있다. "희원"은 아기자기한 조각부터 큰 석탑, 연못, 정자 등이 멋지게 배치되어 꾸며져 있으며, 때때로 공작새들이 무리 지어 거느리는 모습을 구경할 수도 있다. 호암 미술관 관람 티켓을 구입하면 미술관과 전통 정원 "희원"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김은영

**TIP** 사람이 봄비는 장소를 피해 조용하고 고즈넉한 단풍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추천!  
관람료 :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1, 설/추석 연휴 기간





## 안전제일 팩컴 소방 훈련의 날

요란하게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전원 빠르게 1층으로 집결하라는 이원성 부장님의 채근하는 목소리가 사내에 울려 퍼지면서, 그래도 다들 몇 번 해 보았다고 이제는 별 감흥도 없이 짜 맞춘 듯 묵묵히 자리를 정리하고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네요. 그 틈에 누군가는 소방 호스를 풀고 누군가는 소화기를 집어 듭니다.

후다닥 계단을 내려가면서 어디 한 번 동정을 살펴 보니, 각 층의 모든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1층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요. 다들 맑은 바 임무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 듯 해 보였습니다. 방화문을 닫으시는 분, 문 앞에서 "빨리 대피하라"며 다급하게 고함을 치시는 분, 기계를 끄고 신속하게 정돈하시는 분, 중요한 서류라고 상자 하나를 가슴에 끌어 안고 나오시는 분 까지… 모두들 자기 역할에 충실히 소방 훈련에 임하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유미애 과장님과 김수민 대리님이 내려온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씩 일일이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무실에 없었던 사람과 아직 내려오지 않은 사람들을 찬찬히 구분해 가면서 대피하지 않은 인원이 아직 남아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데, 외중에 이원성 부장님은 전원이 대피를 마치는 데에 걸린 시간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되니, 정해진 집결 장소에 모두가 무사히 모여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남아 있는 누군가를 빠르게 구조하려면 대피한 사람의 수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테니까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게 될 경우, 불이 났다고 당황하여 우왕좌왕 아무 곳에나 흘러져 있을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집결 장소에 모여서 꼭 서로가 무사한지, 빠진 사람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팩컴의 마스코트, 우리 명명군 현풍이까지 빠짐없이 현장에 전부 모이자 자리를 옮겨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시 대처 방법을 배우기 위한 상황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희수 차장님의 힘 있는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환자는 살아났고, 금세 기운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공호흡까지 하는 모습을 꼭 한 번 보고 싶었는데요(웃음) 환자가 너무 빨리 일어나게 되어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나름대로 박진감이 넘치는, 꽤나 그럴듯한 상황극 설정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소방서에서 나오신 구조 대원들께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또 세세한 설명까지 곁들여 주셨는데요, 어느 새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들이 진지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성 부장님의 간단한 브리핑과 박수로 현장은 이내 아무 일 없던 듯 정돈되었고, 다들 자기 본연의 자리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올해의 소방 훈련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 때, 문득 "기밀서류"라며 가슴팍에 상자 하나씩을 사이 좋게 끌어 안고 있는 김인선 대리님과 유공심 과장님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중요한 서류여서 꼭 챙겨 줘야 한다는 두 사람의 말에 상자 안을 은근슬쩍 확인해 보니, 어째 중요 서류는 간 곳이 없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빈 상자 안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졌는데요.

하지만, "진짜 불이 나면 대체 뭘 들고 나와야 해?" 개중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지자 분위기는 다시금 숙연해졌습니다. 다들 이렇다 할 대답은 하지 못 했고, 저 역시도 홀로 조용히 생각에 잠길 따름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나는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이 물음에 아마도 각자들 염두에 둔 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

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중요 서류이든, 옆에 있는 동료이든 간에요. 묵직한 이 질문은 화재 시 자신의 역할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또 기억해 두게끔 하는 기회가 되었을 테지요.

고백하자면 사실 저는, 전날부터 소방 훈련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잔 걸음으로 돌아다니시는 이원성 부장님을 보면서(부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단순한 훈련일 뿐이고, 솔직히 막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일 텐데… 갑자기 발생하는 화재 상황에 이 훈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혼자 회의적으로 생각했었답니다.

하지만 훈련이 무사히 끝난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소방 훈련은 화재 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상의 상황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데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 피해를 줄이는 것보다는 예방이 훨~씬 쉽다는 걸 우린 모두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소방 훈련을 잘 마친 우리 팩컴 가족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짹짜짜!!!!

P 봉원미



# 별다방 말고, \* \* 별마당 도서관!



한적한 여름 휴가 기간, 공교롭게도 가족들과는 일정이 맞지 않아 홀로 쓸쓸히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날씨는 찜통 수준으로 덥다 못해 푹푹 찌고, 그렇다고 이런 황금 같은 휴가 기간에 집에서 계속 방콕이나 하고 있기는 또 뭐하고. 기자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서 스마트하게 인터넷으로 시원한 곳을 열심히 검색하다 보니, '별마당'이라는 낯선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별다방 (=스타벅스)은 알겠는데 별마당이라….

백문이 불여일견! 마침 휴가에 시간도 넉넉하겠다. 일단은 무작정 찾아가 보기로 한 후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고 협곡단신으로 떠났습니다. 삼성역에서 내려서 곧장 코엑스로 들어가는 익숙한 길을 지나서 늘 인파로 붐비는 코엑스몰 안쪽, 조금 걷다 보니 중앙에 펼쳐진 광경에 기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 하였습니다.

일단 코엑스 자체를 신세계의 계열사인 신세계 프라퍼티가 인수하게 되면서, 내부가 코엑스 스타필드로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중앙 광장 하나를 통째로 할애한 이 공간을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이고 운영 중인 듯 했는데요. 스타필드(Starfield)라는 영어도 물론 예쁜 이름이지만, 스타필드의 한글 뜻풀이 그대로 이름 붙여진 별마당이라는 이름은 예쁘면서 알기도 쉽고, 더욱 정감이 가면서 뇌리에도 잘 남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도서관이라 하면 다들 책들이 좌우 책꽂이에 단조롭게 꽂혀 있고, 책 읽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으며 정숙이 중요시되는 공간을 으레 떠올리실 텐데요. 이 별마당 도서관은 그야말로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꾀한 곳이더군요. 만화 혹은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나 볼 수 있을 범한 천장까지 높게 달아 있는 책꽂이 안에 수많은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또한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

유하고 있는 총 5만 여 권의 책들은 이 공간 안에서 무료로 읽어볼 수 있답니다. 이 많은 책들 중 우리 회사에서 인쇄된 책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소소한 재미 거리였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둘러보던 중, 문득 궁금증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아주 높은 곳에 올려져 있는 책이 무슨 책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그 책을 어떻게 꺼내 읽을 수 있을까요?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 모니터로 확대를 해 보면 무슨 책인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고, 또 그 책은 따로 보관이 되어 있어서 안내 데스크에 요청을 하면 읽어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공간이 오픈되어 있어도 주변에 항상 보안 요원이 눈을 번뜩이며 감시하고 있어 분실은 없다고 합니다.

저처럼 휴가 기간을 할애하여 다들 시원한 실내로 피서들을 온 건지, 사람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책을 읽는 사람보다는 구경하는 사람들, 사진 찍는 사람들, 데이트가 목적인 사람들이나 쇼핑하며 지나치는 사람들 등이 더 많은 듯도 했습니다. 어차피 진짜 독서가 목적인 사람들은 주변이 다소 어수선하거나 소란스러워도 묵묵히 책을 읽겠죠?

그래도 이렇게 붐비는 대형 쇼핑 공간 한가운데에서도 손쉽게 책을 접해 읽을 수 있고, 또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으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점에는 개인적으로 퍽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마치 외국 어딘가의 멋진 도서관에 여행 와 있는 듯한 분위기! 수많은 책들!

올 가을, 마침 독서의 계절이니만큼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은 시간을 내어 방문해 보는 게 어떠세요? (여담이지만 기자는 이후 세 번이나 더 방문했답니다!) **이원성**



신라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 <경주 여행>



## 천 년의 고도(古都)라고 불리는 경주,

여러분은 "경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이 높은 확률로 학창시절의 수학여행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간직한 도시이니만큼 고즈넉한 유적지도, 불거리와 이야기거리도 참 많은데요. 물론 복작복작했던 수학여행의 아련한 추억도 좋지만, 여유를 즐길 수 있어 보다 색다른 맛이 있던 경주 여행을 소개하겠습니다!

4시간 남짓의 긴 시간, 고속도로를 쌩쌩 달려 도착한 경상북도 경주!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마침 날씨도 여행을 도와주는 건지 화창함 그 자체였습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 때문인지 아름다운 도시 경주가 더욱 더 아름답게 느껴져 마음이 더 들뜨더라고요!

우선 경주에 도착하여 가장 처음으로 간 곳은 불국사였습니다. 경주 하면 바로 떠오를 그 곳, 경주에 있는 수많은 사찰 중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문화재가 많이 있어 으뜸이라는 대표 사찰 불국사!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풍광과 한데 어우러져 있는 불국사의 정경은 굉장히 멋졌습니다. 그 자체로도 아주 유명한 문화재인 만큼 저를 제외하고도 관광객들이 참 많았지만, 차분한 불국사의 분위기 덕분인지 아주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구경할 수가 있었어요. 불국사에는 완성된 통일 신라 석탑 양식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는 석가탑과, 그간 10월 짜리 동전에서만 많이 봐 왔던 다보탑의 정교한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면 더욱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코스는 불국사 근처에 위치해 있던 석굴암이었습니다. 석굴암은 주차장에서부터 걸어서 약 15분 정도 산길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만나볼 수 있답니다. 걷기 편한 신발은 필수죠!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 석굴암 내부에서의 사진 촬영은 아쉽게도 금지되어 있어요. 석굴암의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다 못 담는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그 대신 눈과 기억 속에 아름다운 신라 불교 미술의 정수를 한 가득 담아왔답니다. 석굴암에서는 바로 바다를 볼 수 있어서 그것 역시도 참 신기했어요!

해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할 때 즈음 해서 야경이 멋지다고 소문이 자자한 첨성대와 안압지 근처로 출발했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닌 탓인지 중간에 허기가 져서 열심히 식사도 하고, 아래저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어두워져 있었어요. 유명한 불국사나 석굴암보다도 관광객이 활짝 많았던 안압지! 입구에서부터 그 인파가 엄청났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예쁘고 멋진 곳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나 했었는데, 입장해서 바로 보자마자 딱! 말하지 않아도 딱!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물에 비친 안압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사진 찍는 것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으로 뽑을 만큼 최고였던 안압지! 꼭 야경 보러 가시길 추천해 드려요! 안압지에서 한참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구경하다가 마지막 코스인 첨성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적하면서도 또 굳건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첨성대를 보고 있자니, 첨성대에서 옛 사람들은 어떻게 별을 봤고, 그 많은 별들을 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소소한 궁금증과 감상적인 마음이 절로 생겨나더군요.

1

2

4

3

다음 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첨성대의 모습이 기억에 자꾸 남아서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러 갔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첨성대는 밤에도 물론 참 예쁘지만, 해가 떠있을 때 더 예쁜 것 같았어요! 아쉽게도 지면 관계 상 생략된 부분이 조금 있지만, 본지에서 소개한 것들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불거리들을 일차례 보고 돌아온 경주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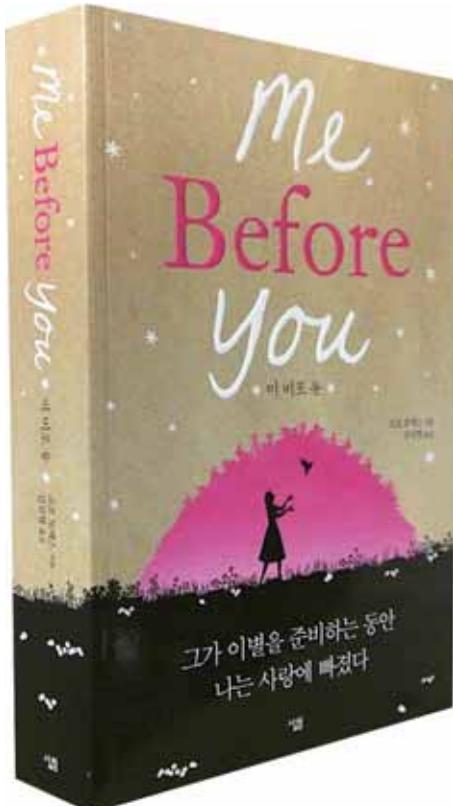
- 1 야경이 아름다운 안압지
- 2 화려하고 웅장한 불국사
- 3 신비함을 지닌 석굴암
- 4 동전 10원 속의 다보탑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여행지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경주는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랜 시간을 간직해 온 여러 문화재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선선한 가을에 더 가기 좋다는 경주!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옛 도읍의 정취를 만끽하려 훌쩍 다녀오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박다솜

# Me Before You

미 비포 유 / 조조 모예스  
※ 책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랑이 물었다  
내 곁에서 그냥,  
살아주면 안 되나요?  
그가 이별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사랑에 빠졌다



가을이라는 계절 탓일까?

책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눈시울을 적셔 본 적이 없었는데...

2년 전 읽어야겠다며 굳게 결심하고  
는 사 두었다가, 어느덧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한 쪬에 미뤄두었던 책!

지난 해 가을이었던가.

어느 주말에 무심코 읽기 시작했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해서도, 훌연히 책장을 열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늦게까지 푹 빠져들어 읽었던 기억...

아! 사랑, 그게 뭐라고…

사지가 멀쩡한 채로 살아갈 수 있다  
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하고 싶을 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우린 어느덧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나 보다.

내가 만약 불의의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거나, 혹은 불행히도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나는 과연 주인공 월처럼 "선택하는 죽음"을 결심할 수 있을까?

또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한다면 과연 나는 동의할 수 있을까?

잘 가라며 그를 보내줄 수 있을까?  
어렵고 또 어렵다!

월을 향한 루이자의 순수한 사랑을  
그는 단순한 자기 이야기만으로 거절한 걸까?

그는 정말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죽은 걸까?

프랑스 어느 거리의 카페 마르카에서  
크루아상과 커다란 카페 크림을 앞에 두고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월의 편지를 읽는 그녀는 그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운에 젖어 책을 덮었다.  
불현듯 찾아온 이 모든 멜랑꼴리함은  
내게 살아 있는 바로 지금, 오늘을 후회 없이 즐겁게, 그리고 또 소중하게.  
하고 싶은 것들, 사랑하고픈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라고 한다. P 황철원

# 모르면 손해! 2017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제도들

2017년도 하반기부터 새로 적용되는 제도들은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알찬 정보들만 쑥! 쑥! 엄선해 보았다. 모르면 나만 손해라는 유용한 생활 정보들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 1. 종이통장 발급, 필수가 아닌 선택!

9월부터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통장 발급 여부를 묻고 있다. 이제는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종이통장의 역할 자체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 종이통장 미발급을 선택할 경우, 창구 수수료 면제나 우대 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60대 이상에게는 예외적으로 기존처럼 종이통장을 발급해 주고 있다.

\*오는 2020년부터는 종이통장을 발급하려면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60대 이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 없이도 종이통장 발급이 가능하게끔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 2. 신분증 분실? 인터넷으로 신고하자!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앞으로는 굳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해야 했었으나, 7월부터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분실 신분증으로 제3자가 금융 거래를 시도하게 될 경우, 본인 확인을 꼼꼼히 할 수 있게끔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주의' 문구가 뜨는 식이다.

\*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내역 등을 편리하게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

## 3.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

이제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엄연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해수욕장은 7월부터 연중 내내 24시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금연구역 지정은 12월 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 4.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활용 폭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했을 경우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며, 환급은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하반기부터는 경차 소유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 구매 카드)의 활용 폭이 확대된다. 우선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는 기준 신한카드 1개사에 롯데·현대카드가 추가돼 총 3개 사로 늘어나게 되며, 현재는 주유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카드 형태 역시 다른 일반 물품도 구매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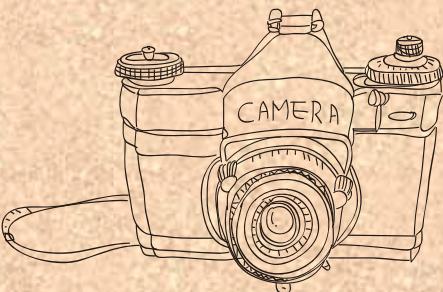
## 5.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최소화

보험료 할증이 교통사고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반영된다. 기존에는 내가 상대방보다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똑같이 올라가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 왔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가해자나 피해자나에 따라서 할증 보험료가 달라진다. 즉,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보험료가 덜 올라가게 되는 것! 이는 9월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 보험 보험부터 반영된다고 한다.

## 6.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과태료 납부가 가능했으나, 2017년 6월부터는 과태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혹은 직불카드)로도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을 때 내는 가산금은 기존 5%에서 3%로 경감되었다. 만약 납부 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 김은영





# 찰각소리

E semii@gopacom.com

재밌고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 주세요!





## PACOM NEWS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MBA 과정 팩컴 군포 공장 견학

지난 6월 28일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여성 CEO 20여 분이 군포 공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최숙 대표이사가 1시간을 할애하여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인쇄 공장 등 현장으로 내려가 인쇄 과정 및 후 과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소방 훈련

지난 9월 7일, 군포 공장에서는 소방 화재 예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자위 소방대원을 임명하고, 직원들에게 자체 소방 활동 임무를 부여하여 화재 발생 시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비상 화재 발생 예보 역시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오금소방파출소에서 팩컴의 자체 훈련 모습을 보고 강평을 해 주었으며, 직원들 중 임의로 1인을 선발해 소화기 사용을 실습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울러 소방 구급 대원의 심폐소생술 실습 설명과 함께, 마네킹을 대상으로 직원이 직접 사범을 보이기도 했던, 박진감 넘치는 훈련이었습니다.

### 인쇄문화의 날 기념 대한인쇄문화협회 협회장 표창 수상

지난 9월 14일에는 제29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행사가 서울 종구 PJ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PREPRESS 사업부의 윤영봉 대리가 대한인쇄문화협회 협회장 표창을 수상하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인쇄

관련 업체 임직원 및 가족들이 행사에 참여하였고 축하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었다고 합니다.



### 입사 : 해외영업부 도전팀 봉원미 대리 / 제본사업본부 표지발이팀 이오영 대리

팩컴 수출에 큰 공헌을 했던 봉원미 대리가 지난 7월 10일, 도전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울러 지난 9월 20일에는 제본사업본부 표지발이팀에 이오영 대리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 두 분을 환영합니다!



### 출산 : 해외영업부 혁신팀 주선영 대리

해외영업부 혁신팀의 주선영 대리가 지난 9월 2일, 드디어 어여쁜 공주 박서아 양을 출산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벽에 양수가 터져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가족 분 만실에서 아빠가 바라보는 가운데 태어났으며, 현재 큰 행복 속에서 그저 이 작디 작은 생명이 신기하고, 또 예뻐 죽겠다는 주선영 대리는 '카카오톡으로, 또 메시지로 축하한단 말을 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일일이 답장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우리 서아가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거듭 전했습니다.



### 탁구 대회

지난 9월 8일, 팩컴 동호회 중 가장 활동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운영 중인 탁구 동호회의 정기 탁구 대회가 의왕 실내탁구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출전한 선수는 총 20여 명으로, 평소 점심 시간 및 저녁 시간을 쪼개 가며 회사 탁구장에서 불철주야 연습을 거듭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게임 방식을 예년과 달리하였고, 또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불꽃 튀는 박빙의 승부였으나 이번에도 이번 없이 무선팀의 정대성 과장이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쉬는 날에도 집 근처 탁구장에서 열혈 특훈을 불사하였던 청조팀의 성문기 차장이 2위를 차지, 올해는 꼭 우승을 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몸을 만든 접지팀의 박종천 대리는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 산업 시찰 참가

지난 9월 13일 ~ 15일, 군포상공회의소 주관 군포시 관내 기업 우수 임직원 문화사업 시찰단 파견에 제본사업본부 정대성 과장, 임정기 과장이 선발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3일 간 삼성전자 구미공장,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 현대미포조선, 포스코 포항 제철소 등 국내 우수 산업체를 시찰 및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 이원성

어제  
내려놓았어  
금방 내려올 거야

이제 다 지나간 거야  
그들도 다 내려놓았어  
마지막 남은 한 잎마저  
금방 내려올 거야

## 내려놓고 가기

나 또한 그들처럼  
지난 봄부터 썩 틱워서  
꽃 피우고 열매 맺었던  
화려했던 날들 모두  
이제 내려놓으려 해

어깨 위에 짊어진 짐이  
때론 무겁고 힘들었어  
중간에 벗어 던지고 싶었지만  
때가 되면 떠나기 싫어도  
무조건 떠나야 하는  
이 날을 기다려 왔어

모두가 떠난 고요한 가지에  
차가운 바람이 지나갈 때  
보이지 않는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원기를 다시 시작할  
조용하고 차가운 시간이  
내게도 필요해



# [북메이크]

단 한권의 책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북메이크는 “대한민국 1위 인쇄 수출 기업” 팩콤의 소량 인쇄 제작 서비스 브랜드로,  
2008년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고자 5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콤코리아 [www.gopacom.com](http://www.gopacom.com) | 북메이크 [www.bookmake.co.kr](http://www.bookmake.co.kr) | 문의 : 1577-3669